

텐, 텐, 텐...영국 거리 헌트 男하이다이빙 대역전 우승



1·2차 합계 4위로 부진
4차 시기 미기 힘든 연기
심판 5명 중 3명 10점 만점
내내 1위 달리던 로뷰 2위

10(텐) 10(텐) 10(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최고의 인간 새는 영국의 거리 헌트(사진)였다. 거리헌트가 광주 하늘에서 전 세계 수영팬들에게 하이다이빙의 짜릿한 묘미를 선

사하며 대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2일 열린 1·2차 시기 합계 4위로 부진했던 거리 헌트는 24일 낮 12시 광주시 동구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남자부(27m) 결승 4차 시기에서 156점, 4차 시기 합계 442.20점을 얻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거리 헌트는 4차 시기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 5.2를 선택했다. 10위를 차지한 미국의 폴트리 데이빗(5.4)의 난도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거리 헌트는 마지막 시기에서 몸을 비트는 트위스트 자세로 4바퀴를 돌고 위아래로 3바퀴를 도는 연기를 실수 없이 소화해 냈다.

거리 헌트의 연기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물론 심판들까지 매료시켰다. 심판 7



명 중 5명이 10점 만점, 2명이 9.5점을 줬다. 이날 통틀어 10점은 거리 헌트가 유일했다.

하이다이빙은 최하점 2개와 최고점 2개를 뺀 중간치 3개 점수에 난이도를 곱해 점수를 매긴다. 거리 헌트의 점수가 전광판과 장내 야나 운서를 통해 알려지자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에는 관중들의 환호성이 쏟아졌다. 거리헌트의 점프·회전·입수 3박자를 모두 갖춘 완벽한 연기를 지켜본 관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3차 시기까지 내내 1위를 달리던 미국의 스티브 로뷰도 이날 실수없는 플레이를 펼

쳤다. 하지만 거리헌트의 믿을 수 없는 연기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4차 시기에서 뒤로 서 4바퀴를 돌고 옆으로 2바퀴를 도는 연기를 펼친 스티브 로뷰는 128.80점 획득에 그쳤다. 8.55점 차이로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자 다리가 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금세 일어나 거리헌트를 축하해줬다.

동메달은 합계 430.15점을 기록한 멕시코의 파레데스 조나단에게 돌아갔다.

거리헌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 좋다. 이런 경기를 펼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며 "4차 시기를 앞두고 100%의 자신감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자신 있게 해온 연기라서 편안하게 점프했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특별취재단=김현영 기자 young@

“엄지척·팔 하트로 선수들에 심리적 안정감도 주죠”

하이다이빙 수중 안전요원
포르투갈 마리오·카를로스
“27m 플랫폼서 뛰어보진 못해”



포르투갈 출신의 하이다이빙 안전요원 카를로스(왼쪽)와 마리오가 선수들에게 보내는 'OK' 사인을 해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인간새'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

선수들은 최대 27m 높이 플랫폼에서 낙하해 시속 90km가 넘는 속도로 입수한다. 건물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다 보니 잘못 입수하는 경우 정신을 잃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대비해 플랫폼 안에는 4명의 안전요원이 대기한다.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외국인 안전요원 두 사람이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water safety'로 활약 중인 포르투갈 국적의 마리오(51), 9카를로스(42)씨다.

2009년 레드블 클리프 다이빙 첫 대회부터 팀을 이뤄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은 베테랑이다. 두 사람은 전문 안전요원이긴 하지만 본업은 따로 있다. 마리오는 포르투갈 해군에 복무중인 군인이며 카를로스는 현지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다.

마리오는 “우리는 하이다이빙 선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플랫폼 안에서 대기한다. 위급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선수가 입수할 때 충격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와 골절상을 입는 경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안전요원들은 선수들을 물 밖으로 꺼내 응급조치를 취하는 일을 하고있다.”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일도 이들의 몫이다. “27m 높이에서 떨어질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물보라를 일으켜 낙하 지점을 표시해 주고, 선수들에

게 엄지를 들어보이거나 양 팔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요. 표현하지는 않지만 선수가 다이빙하기 전 우리도 매우 긴장됩니다.”

카를로스는 “레드블 클리프 다이빙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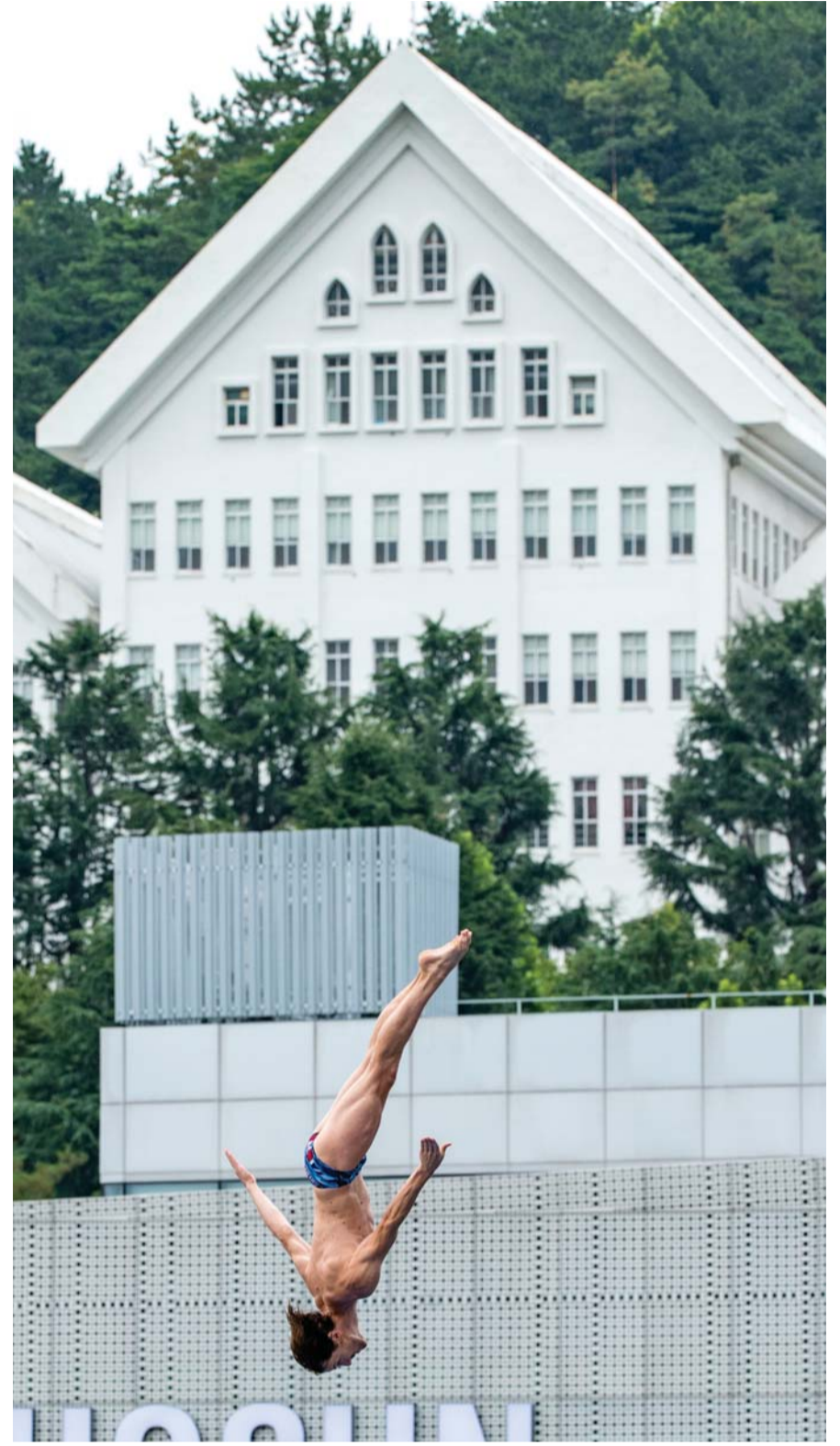
하면 세계선수권대회는 매우 쉬운 임무”라며 “해변에서 열리는 레드블 대회는 수심이 깊고 파도와 바람도 심해 4~5시간 가량 진행되는 경기 내내 물 위에 떠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소개했다. 심지어 식

사 또한 물에 뜬 채 제트스키를 통해 배달된 샌드위치나 물을 마시며 버틴다고 한다. 카를로스는 “이곳은 수영장에 단지 떠있기만 하면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하이다이빙 선수들은 연기를 마치고 나면 이들과 포옹을 하거나 손뼉을 마주친다. 카를로스는 “선수들도 우리를 동료라고 생각한다. 11년째 하이다이빙 안전요원으로 일하다 보니 모르는 선수가 없고 코칭스태프와도 친분이 깊다”며 “마리오와 나는 세계적인 ‘감심장’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요원 이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이들은 “선수들이 안전하게 연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한 명의 부상자 없이 경기가 마무리 되기만을 항상 기도한다”고 입을 모았다.

카를로스는 “27m 플랫폼에 올라가 보긴 했는데 뛰어 보진 못했다”며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들(하이다이빙 선수)은 미친 게 분명하다”며 웃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24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열린 하이다이빙 남자 27m 경기에서 영국의 거리헌트가 연기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아이돌 출신 4개 언어 능통...“관중 호응 해주면 짜릿해요” 수구 경기 아나운서 채가혜씨

“수구는 야외에서 진행돼 무덥고 힘들니다. 하지만 관중이 호응을 해주면 워터파크에 온 것처럼 짜릿합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종목이 펼쳐지는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 하프타임과 경기가 끝나면 쿼츠와 인터뷰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관중들과 소통하며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이가 있다. 한국어·영어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수구 여신’ 채가혜씨(사진)다.

영어, 프랑스어 등 4개 언어에 능통한 채가혜 아나운서는 주로 스포츠쪽에서 활동하고 있다. 채 씨는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어·영어 아나운서를 맡았다”면서 “그때 좋게 봐주셨는지 설치가 왔고 스케줄도 다행히 맞아 하게됐다”고 말했다.

그의 이력은 독특하다. 지난 2012년 그룹 'BIKIN'으로 데뷔한 아이돌 출신이다. 채 씨는 “춤을 좋아해 아이돌로 데뷔한 적이 있다. 말도 잘하고 예능감이 있어서 행

사가 있을 때마다 MC를 봤다”며 “예능 출연을 도맡아 하면서 방송진행쪽으로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 아나운서 등 스포츠 현장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평창 올림픽에는 외국인이 많았다. 외국인은 응원 문화에 익숙해 호응을 유도하기가 쉬웠다”면서도 “광주에서 처음에는 호응이 없어 많이 힘들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오빠’ 응원하거나 아이스

브레이킹(icebreaking)도 하는 등 관중과 친해지려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채 씨는 스포츠 크리에이터가 목표다. 그는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지만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다. 한국에 있는 축구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현영 기자 young@

HNT 하나투어

★ 7~8월 한정운항 ★

무안공항 출발

몽골(울란바타르)

▶ 몽골미아트항공
8월 5일(월), 9일(금), 13일(화), 17일(토) 3박5일

▶ 제주항공
7월 26일~8월 23일 매주(화) 3박4일, (금) 4박5일

7~8월 최고기온 22℃

몽골에서 시원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추천포인트 ▶ ① 쏟아지는 별감상 ② 게르숙박 ③ 초원승마체험

<p>savepack CNPF85</p> <p>특가 가격이 혜택</p> <p>몽골·테를지 4일, 5일</p> <p>799,000원~</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게르2박 숙박 #테를지국립공원</p>	<p>하나팩 CNPF87</p> <p>추천 완전정복일정</p> <p>몽골·테를지 4일, 5일</p> <p>1,149,000원~</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게르1박 숙박 #4성급호텔 #승마체험</p>	<p>하나 트래킹 & 레포츠 CNK87</p> <p>이색 트래킹2회</p> <p>몽골 트래킹 5일</p> <p>1,499,000원~</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노소핑 #특식3회 #게르1박</p>
---	--	--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진흥기금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된다.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된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특별여행 상품] 특별여행 상품은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입장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